

2016. 11. 01[화] ~ 11. 09[수]
동유럽 4개국[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2016 안성시의회 의원 국외연수결과보고



안성시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1
○ 목적 및 개요	1
○ 연수일정	3
II. 방문도시 현황	5
○ 방문지 현황	5
III. 연수내용	18
○ 독일	18
- 로텐부르크, 뮌헨	
○ 오스트리아	20
- 할슈타트, 잘츠카머구트, 비엔나	
○ 헝가리	22
- 부다페스트	
○ 체코	23
- 밤베르크	
IV. 연수후기(총평)	24

2016년도 안성시의회 의원 동유럽 국외연수 결과보고

1. 연수목적

- 연수대상 국가의 관광산업 및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이해
- 각국의 문화정책 등을 비교·견학 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정에 적용
- 선진 관광도시의 다양한 문화·예술·유적, 관광인프라시스템 등을 시찰

2. 연수과제

- 전통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전략 관련 자료 수집
- 역사유적지를 보전 관리하는 정책개발 자료수립
- 문화유적의 활용방안 및 활성화 관련 현황 자료수집
- 문화유적의 도시정비 및 자연과 조화 사례 자료수집 등

3. 연수일정

- 연수기간 : 2016. 11. 01 ~ 11. 09 (8박 9일)
- 연 수 국 : 동유럽 4개국(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 연수인원 : 의원 2명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 유광철 의원)
- 분야별 세부연수 목표

☞ 전통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전략 :

- 중세부터 인접국가 뿐만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교역이 활발한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가 녹아있고, 시대별 건축양식이나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성향이 뚜렷하고, 현재까지 문화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관광자원 보존 전략 모색

☞ 역사유적지를 보전 관리하는 정책개발 :

- 역사적 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파괴된 유적에 대한 복원 및 관리방법 수집

4. 주요 연수일정

월 일	지역	일 정 표	비고
제1일 11/01 (화)	인천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 공항 출발 [KE905-13:45] (약 11:55분) ▶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17:40] ▶ 로텐브르크 이동 ▶ 호텔 체크인 	
제2일 11/02 (수)	독일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텐부르크 : 중세 모습을 간직한 구 시가지 견학 ▶ 뮌헨 : 시계탑이 있는 시청사와 마리엔 광장 쌍둥이 탑으로 유명한 프라우엔 교회 	
제3일 11/03 (목)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슈타트 : 찰츠카머гут의 진주 ▶ 찰츠카머гут 호수지역 : 세계자연유산 	
제4일 11/04 (금)	오스트리아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나 : 케른트너 거리, 슈테판 성당, 오페라 극장 ▶ 쉐부른궁전 :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 	
제5일 11/05 (토)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다페스트 : 어부의 요새, 마차시 사원, 부다 왕궁 성 이스트반 성당, 영웅광장 등 	

월 일	지역	일 정 표	비고
제6일 11/06 (일)	헝가리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파섬 : 사회주의 비판 벽화가 있는 존 레논 벽 ▶ 프라하 : 천년의 역사를 가진 백탑의 도시 틴교회, 성비트교회, 프라하성, 구시가지 광장 	
제7일 11/07 (월)	체코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를로비바리 : 카를왕의 온천 ▶ 밤베르크 : 레크니츠강 다리위의 구시청사 가이어스퇴르트 성, 밤베르크 성당 	
제8일 11/08 (화)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뷔르츠부르크 : 중세 바로크풍의 고도 마리엔베르크 요새, 레지덴츠 궁전 정원 ▶ 프랑크푸르트 : 시청사, 뢰머광장 	
제9일 11/09 (목)	독일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 [KE906 19:04] ▶ 인천 공항 도착 : [KE906 12:55] (비행시간 10:15 소요) 	

해 외 연 수 참 가 자 명 단

(동유럽 4개국 11.01-11.09)

연번	직 위	성 명	비고
1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2	의 원	유광철	

I 방문지 현황

◆ 독일



면적은 35만 7022km²이고, 인구는 8085만 4408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베를린이다. 인구밀도는 km²당 228명이다.

인구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고, 유대인·슬라브인·위그노인 등의 소수민족이 있다. 언어는 고지독일어(高地獨逸語)와 저지독일어(低地獨逸語) 중 일반적으로 고지독일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으며, 16세기에 루터의 성서번역에 의해 신고지독일어(新高地獨逸語)가 확립되어 방언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

종교는 신교와 구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신교는 주로 북부와 동부에 분포하여 전체 인구의 약 51%가 믿고 있으며, 구교는 주로 남부와 서부에 분포하여 전체 인구의 약 48%가 믿고 있다.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이다.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은 3조 40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1955달러이며, 우리나라의 대 독일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주종목은 자동차·무선전화기·선박 등이고, 수입액은 210억 달러로 자동차·직접회로반도체·자동차부품 등이 주종이다.

<형성 및 변천과정>

독일의 역사는 게르만민족의 대이동 이후 프랑크족에 의해 여러 부족이 통합되어 프랑크왕국이 건립되는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부족통합의 제반 과정을 완결한 칼 대제가 사망한 뒤 동·서프랑크로 분열되었으나, 오토 1세에 이르면 신성로마제국이 탄생하여 이후 13세기 전반까지 ‘황제시대’가 계속된다.

그러나 제후의 세력이 커지면서 대공위시대(大公位時代)를 거쳐 다시금 15세기부터는 합스부르크가(家)에 의해 제위가 세습되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독일사회는 심대한 충격을 받아, 기사전쟁(騎士戰爭)·농민전쟁·종교전쟁 등을 거치면서 1555년에는 아우크스부르크종교회의(Augsburg 宗教和議)에 의해 신·구교가 분리되게 된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종교적 평화는 달성되었으나, 연방체제가 성립됨으로써 독일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분산화·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친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의 유럽지배는 분열된 독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통일운동의 기운이 무르익었다. 나폴레옹 몰락 후 빈회의를 거쳐 독일의 민족운동은 독일연방으로 성과를 보았으나, 완전한 통일은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으로 대표되는 프로이센 주도의 통일

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뒤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치스의 제3제국을 경험하였고,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함으로써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4개 연합국의 점령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냉전이라는 동서대립의 세계정세 속에서, 1949년에 이르자 미국·영국·프랑스 관리지역에는 서독이, 소련 관리지역에는 동독이 성립되어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독은 1949년 5월 23일 통일까지의 잠정헌법으로서 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 해 9월 21일에 국가를 수립하였다.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며, 의회는 양원제를 취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은 1949년 10월 7일, 인민회의를 열고 독일민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의회는 단원제이며 인민회의가 형식상의 국가최고권력기관이었다.

1969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설치된 국가평의회는 의회해산·총선거 실시·법령공포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내각에 해당하는 각료평의회는 통일전선을 구성하는 5개 정당의 연립정권의 형태를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단독정권이었다.

1955년 서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맹하자, 동독도 같은 해 바르샤바조약기구(WTO)에 가맹하여 ‘두 개의 독일’을 굳히는 길로 나아갔다. 이어 1961년 9월에는 동·서독의 긴장관계를 상징하는 베를린 장벽이 동독에 의해 구축되었으나, 1969년 서독에 브란트 정권(Brandt, W. 政權)이 등장하여 이른바 ‘동방정책(Ostpolitik)’의 기치 아래 ‘1민족 2국가’라는 현실정책을 추구하면서 화해의 길로 들어섰다.

1970년 동·서독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에 조인하여 현 국경선을 상호 승인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1974년 6월에는 동·서독이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동서냉전체제의 해빙과 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힘입어 독일민족은 재빨리 통일을 성취하였다. 1990년 3월 18일 구 동독 인민회의의 결정으로 동독지역이 1990년 10월 3일에 흡수통합되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 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1949년 5월 23일에 제정된 기본법(Grundgesetz)에 기초하여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으로 법치주의에 의한 자유주위적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대통령을 둔 내각책임제인데, 대통령은 연방대통령선출 특별위원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한다. 이 위원회는 연방위원과 주(州)의 국민대표 동수로 구성된다.

연방수상은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며, 자신의 책임 아래 각 부처 장관을 제청

하고 정책을 수행하여 나간다. 사법부는 연방제의 특성에 맞도록 각 주의 법원제도를 갖추어, 5개 연방차원의 법원, 즉 연방대법원·연방행정법원·연방재정법원·연방사회법원·연방노동법원 등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Bundes Verfassungsgericht)는 모든 헌법기관에서 독립적인 최고의 법원으로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 9월 27일, 이제까지 연립정부를 이루던 기민당(CDU/CSU)과 자민당(FDP)이 총선거에서 패배하여 16년간 집권해 온 ‘통일수상’ 콜(Helmut Kohl)이 물러나고 사민당(SPD)의 슈뢰더(Gerhard Schröder)가 새 수상이 되어, 통일 이후의 실업문제와 사회연대, 환경 및 조세정책을 새롭게 실천하고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경제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주도적 국가이다.

<기 후>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이다. 서부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해양성 기후로 온난하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면서 대륙성으로 바뀐다. 동부에서는 대륙성 기후를 보여 강수량도 적다. 기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데,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의 1월과 7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0℃와 17.3℃, -0.5℃와 19.4℃, -2.2℃와 17.7℃이다.

◆ 헝가리

 수도는 부다페스트이며, 대략 북위 49~45°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315km), 동경 16~23° (동쪽에서 서쪽까지 525km)에 걸쳐 있으며, 북쪽으로 슬로바키아,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남쪽으로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서쪽으로 오스트리아와 접해 있다.

<자연환경>

헝가리는 지형적으로 2개의 저지지방과 2개의 고지지방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2개의 저지지방 가운데 면적이 넓은 노디올펠드(헝가리 대평원)는 헝가리의 동부와 남부에 해당하며, 헝가리 전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노디올펠드와 그보다 면적이 작은 북서쪽의 키슈올펠드(소평원) 사이 남서부에 기복이 완만한 고지지방(해발 400~700m)인 트란스다뉴비아(두난틀)가 자리잡고 있다. 트란스다뉴비아의 북동쪽에 또 하나의 고지지방인 북부산맥이 뻗어 있는데, 이 산맥은 카르파티아 산계 안쪽 부분(화산성이며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음)의 일부이다. 북부 산맥의 지맥인 마트로 산맥에 헝가리의 최고봉인 케케슈 산(1,015m)이 있다.

헝가리의 2대 주요강인 도나우·티소 강은 헝가리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

지른 후 남쪽의 세르비아로 들어간다. 도나우 강이 티소 강의 서쪽에서 흐르며, 헝가리를 흐르는 도나우 강의 지류들은 알프스 산맥에서 발원한다. 티소 강은 북쪽의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발원한다.

20세기에는 홍수 통제사업계획으로 피해지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노디올펠드 일부지역에서는 도나우 강이 여전히 1년에 2차례씩 초봄과 초여름에 범람한다. 도나우 강은 범람기중에 유출량이 연평균치의 4배까지 불어난다. 헝가리에는 천연호수가 3개밖에 없지만 그중 하나인 트란스다뉴비아 고지에 있는 볼로톤 호는 면적이 598km²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 가운데 하나이다. 적당히 건조한 대륙성기후를 보인다. 기온은 1월에 -4~0℃, 7월에는 18~23℃의 분포를 보이며, 연평균기온은 10℃이다. 트란스다뉴비아는 일반적으로 연간 7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반면, 키슈올펠드 북부 산맥에는 560~700mm의 비가 내리고, 노디올펠드 대부분 지역은 560mm 이하이다.

헝가리 전체면적의 3/5에 해당하는 지역이 경작 가능지로 추정되며, 그 대부분이 저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국토가 전반적으로 저지인 관계로 천연적인 침엽수림은 드물며, 비교적 높은 곳에서는 너도밤나무, 다소 낮은 곳에서는 참나무로 이루어진 낙엽수림이 국토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삼림지대에는 사슴과 멧돼지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저지대에는 자고·꿩·산토끼·설치류 등이 많다.

헝가리에는 보크사이트(알루미늄의 주요원광석)가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보다는 적지만 철·칼륨·몰리브덴·바나듐 같은 다른 금속들도 생산된다. 레치크에는 상당량의 구리를 비롯하여 납·아연·금이 매장되어 있다. 채굴 가능한 망간도 상당량이 있으며 갈탄을 포함한 석탄은 헝가리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다. 매장량이 풍부한 유전과 천연 가스전이 노디올펠드 몇몇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메체크에 있는 우라늄 원광 매장지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문화>

예술과 과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한 헝가리인이 많다. 헝가리 태생의 과학자 가운데 알베르트 쉐트 디외르디, 게오르크 본 베케시, 유진 위그너, 에드워드 텔러, 레오 실라르드, 존 폰 노이만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수상했다. 음악계의 페렌츠 리스트, 벨로 보르토크, 졸탄 코다이 역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시인 야노슈 오로니와 산도르 페퇴피 및 작가 칼만 미크사트와 지그문트 모리츠의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역사>

로마인들은 헝가리 서부지역을 판노니아라고 불렀는데, 이곳에는 당시 일리리

아인과 켈트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BC 14년에 판노니아는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다. 반면 도나우 강의 동쪽 지역은 로마 제국에 한번도 점령되지 않았으며, 여러 게르만계 부족과 아시아 중족들이 거주했다. 200년 이상 아바르족의 영토였다가 800년경 샤를마뉴 대제에게 정복되었다. 5세기에 유목생활을 하는 핀우고르어를 사용하는 마자르족이 이전의 정착지인 유라시아의 스텝을 떠나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892년 신성 로마 제국의 아루눌프 황제가 모라비아인들을 정복하기 위해 마자르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자르인들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아르파드를 군주로 선출한 후 노디올 지방에 정착했다. 마자르인들은 중부 유럽을 약탈하다가 955년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1세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뒤 약탈행위를 그쳤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아르파드의 손자인 게조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고, 1000년에 즉위한 게조의 아들 이슈트반은 그리스도교 전파와 국가의 발전을 계속 추진했다.

1241년 몽골인들의 침공을 받고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는 재난을 겪었다. 자민족이 세운 왕조인 아르파드 왕조가 막을 내린 1301년부터 1918년까지 헝가리는 단 1차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곧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 14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이 공격을 가해왔으며, 1568년에 이르러 지금의 헝가리 영토는 3개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서쪽의 대상(帶狀)지역인 로열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으며, 동쪽의 트란실바니아(대략 지금의 루마니아 북서부)는 1566년 투르크의 지배하에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중앙 평원)은 투르크의 직접 통치를 받았다.

오스만 제국의 뒤를 이어 헝가리에 대한 주권을 획득한 합스부르크 왕가는 카를로스 3세와 마리아 테레지아의 재위기간을 제외하고는 투르크인들과 마찬가지로 전제정치를 실시했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반란을 가혹하게 진압했다. 마침내 1800년대초에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당시 헝가리 전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던 마자르인 외에 여러 민족들은 마자르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법안에 불만을 품었다.

1848년 빈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1년 뒤 로요슈 코슈트의 지휘하에 헝가리는 독립을 선언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헝가리에 대한 통치권을 재주장했지만 국력이 쇠퇴하자 헝가리와 타협하고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설립했다. 그러나 민족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결국 제1차 세계대전 후 헝가리는 독립했다. 루마니아·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오스트리아·폴란드·이탈리아가 모두 헝가리 영토의 일부를 할양받았는데, 헝가리는 잃어버린 영토의 일부라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 대항하여 독일에 협력했다.

헝가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소련 점령군은 1920년 설정된 국경선을

재확인하는 1947년 조약의 이행을 확실시키기 위해 계속 헝가리에 주둔했다. 1945년 헝가리 공산주의자들은 친소 임시정부를 출범시켰으며, 1949년에는 헝가리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1956년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운동이 일어났지만 소련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야노슈 카다르가 집권하면서(1956~88) 헝가리 공산당은 경제·문화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화 정책을 도입했고, 이에 헝가리는 소련의 동유럽 블록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자유스러운 국가로 꼽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89년에는 권력에 대한 독점을 포기하여 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의 주변국가와는 달리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시위를 피해갔다. 1989년 10월 헝가리의 헌법은 다당제를 인정하도록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 봄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승리한 중도 우익 성향의 헝가리민주포럼(Hungarian Democratic Forum)과 그 연합세력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점진적인 이행을 표방했다.

1990년 5월 헝가리민주포럼이 새 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헝가리에서 45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통치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애초 기대와는 달리 20~30%를 웃도는 높은 인플레이션, 전체인구의 14%에까지 이른 급격한 실업률 증가 등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1994년 봄 2번째로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헝가리사회당(Hungarian Socialist Party)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좌파가 다시 득세했다.

의회의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헝가리사회당은 자유민주연합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새 정부는 경제안정과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 기존정부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갈 것임을 밝혔다.

<헝가리와 한국과의 관계>

1987년 12월 부다페스트에 한국무역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헝가리는 1988년 3월 서울에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상주시켰다.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헝가리를 방문하여 항공·관광 협정을 체결했으며, 1990년 11월에는 곤츠 대통령이 방한했다. 북한과는 1948년에 외교를 수립했으며, 한국과는 1989년 2월 1일에 공식 수교를 맺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헝가리는 공산국가 가운데 정식 국교를 수립한 첫번째 국가이다. 1992년 3월에는 부다페스트공과대학에 양국간의 기술협력 센터를 개설했다. 1996년 현재 대한수출액은 2,690만 3,000달러로 철강 및 금속 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대한수입액은 1억 8,421만 9,000달러로 전자·의류·기계류·섬유 제품 등이 주를 이룬다. 1997년 현재 체류자수는 330명이다.

◆ 오스트리아



수도는 빈이며, 공용어는 독일어이고 로마카톨릭교가 우세를 보인다. 6-7세기경 그리스도교화 되었고 게르만화 되었다. 1156년경 경제적·문화적으로 번영했고 1278년부터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았다. 1800년 초 제국의 패권을 강화하려 했지만 국가 간 분쟁이 지속되던 중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은 붕괴되었다.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여 세계대전 후 연합군이 주둔했다. 1966년 오스트리아 사회당은 여당이 되어 오스트리아의 부유하고 안정된 경제를 지속시켰다.

혼합 자유시장경제와 국영경제가 발달했으며 제조업이 GNP의 약 34%를 담당한다. 음악분야에서 문화적 공헌을 했으며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는 빈이며, 남북 길이 300km, 동서 길이 약 560km이다. 서쪽으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북서쪽으로 독일, 북쪽으로 체코, 동쪽으로 헝가리, 남동쪽으로 슬로베니아, 남서쪽으로 이탈리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자연환경>

오스트리아는 3개의 지리적 지역으로 나뉜다. 독일, 리히텐슈타인 공국, 스위스,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알프스 산맥을 차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맥지역은 국토의 약 2/3를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산이 많은 주요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몇몇 산은 해발 3,000m 이상이며, 3,797m까지 솟아 있는 그로스글로크너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로스글로크너(Grossglockner)

오스트리아와 동알프스의 호에타우에른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 국토의 약 1/10을 차지하는, 수목으로 덮인 고지대인 보헤미아 대산괴는 체코 북쪽으로 펼쳐져 있는 광범위한 고지대의 일부이며 대체로 고도 1,200m를 넘지 않는다. 빈 분지를 포함하는 저지대는 동부의 거의 1/4을 차지한다. 이 저지대에서 주요농업활동이 이루어지지만 해발 150~400m에는 구릉이 많다. 도나우 강과 이 강의 오스트리아 지류들이 거의 전지역으로 흐르며, 수많은 강과 가파른 지형이 수력발전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후>

습기가 많은 대륙성기후(추운 겨울과 따뜻하거나 덥고 습한 여름)는 오스트리아 북동부의 특색을 이루며 남부와 서부의 알프스 산맥 기후와 대조를 이룬다. 비가 많은 서부지역은 연강수량이 약 1,000mm이며 동부 농업지역은 다소 적다. 저지대와 산이 많은 동부지역의 평균기온은 -1℃(1월)~20℃(7

월)에 이르며, 3,000m가 넘는 산들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

동부에 있는 경작지는 비옥한 토양, 특히 기름지고 검은 체르노젠토(土)가 특징이다.

전국토의 1/4인 목초지와 2/5인 삼림지역의 특성과 분포는 주로 고도에 의해 결정된다. 고도 이외에 오스트리아 산골짜기에서 흔히 일어나는 따뜻하고 건조한 남풍(윈) 또한 식물과 토지의 용도에 영향을 준다. 남쪽 사면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경작지와 목초지로 이용되고, 북쪽 사면은 삼림으로 남아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에서 나무가 가장 뾰뾰하게 많은 나라이며, 숲은 대개 가문비나무 종류와 약간의 낙엽송·너도밤나무·참나무 등으로 이루어졌다. 야생동물로는 평원과 낮은 구릉지대에 노루가 있으며 더 높은 곳에 붉은사슴이 서식한다. 한때 오스트리아에 많았던 야생염소와 스위스염양은 거의 소멸되었다가 지금은 보호되어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마그네슘의 주요원료인 마그네사이트의 전세계 생산량 중 1/10가량을 생산하며, 적당량의 석유, 천연 가스, 아탄, 갈탄 등이 매장되어 있다. 철광석 생산은 국내의 강철 생산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오스트리아는 공업에 필요한 다른 많은 광물이 부족하여 수입을 하거나 가능하면 재생 이용해야 한다.

<역사>

오스트리아가 현재의 국경선 안에 정착한 것은 초기 구석기시대부터였다. 할슈타트 근처에 있는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이 대체로 약 3,000년 전에 서부와 중부 유럽에 존재했던 철기시대 문화에 그러한 이름을 갖게 했다. 이 지역의 주요거주자는 일리리아인으로 알려졌다. BC 400년경에 켈트족이 침략해서 노리쿰이라는 왕국을 세웠고, BC 200년 이후에 이곳의 철광석 광산에 이끌린 로마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BC 15년경 로마인들은 오스트리아 전역을 차지했으며, 라이티아·노리쿰·파노니아 등 세 주를 만들어 번영을 누렸고, 토착민들을 로마화시켰다. 도나우 강 북부에 거주하는 게르만족들의 로마 영토에 대한 계속되는 침략(167~180)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의해 격퇴되었다. 5세기 로마의 멸망과 함께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이 지역을 지나갔으며, 이곳의 최종적인 인종 구성은 바이에른족과 슬라브족에 속하는 아바르족이 정착한 6세기에 이루어졌다.

바이에른족과 슬라브족은 꼭 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프랑크족 사람들은 아바르족을 위협하게 여겼다. 샤를마뉴 대제가 독립심 강한 기질의 바이에른족을 정복했고 계속해서 아바르족을 멸망시켰다. 이후에 이 지역은 완전히 그리스도교화 되었고 인종적으로는 게르만화 되었다.

1800년대 초기의 나폴레옹 전쟁은 신성 로마 제국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오스트리아 제국을 창조했다.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는 독일어 사용 국가들 사이에서 오스트리아의 패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옛 질서에 대한 그의 보수적인 지지, 전제정치에 대한 믿음, 비민주적인 관행들이 빌미가 되어 제국을 혼란시킨 단기간의 혁명(1848)이 일어났다.

프로이센의 힘은 더욱 커졌으며 오스트리아 제국 내의 여러 소수민족들은 근대 다국적 국가의 도전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극심한 압력을 가했다. 1866년 프로이센과의 소규모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가 패하자 제1의 독일어 사용 국가로서 프로이센의 지위가 확립되었고 오스트리아는 제국을 분할해야 했으며,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국이 형성되었다.

치솟는 민족주의 감정이 왕국을 계속 혼란시켰으며, 1914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 의해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되자 오스트리아 제국을 붕괴시킨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는 몇 개의 독립국으로 분할되었으며, 오스트리아는 독립공화국이 되었다. 일부 오스트리아인들이 독일과 연합할 것을 지지했지만 국제연맹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으며 이후 20년 동안 오스트리아는 독일 나치주의자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했다.

1938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에 공화국은 재건되었으나 연합점령군은 1955년까지 남아 있었고, 그후에 오스트리아가 중립을 유지할 것과 독일과 연합하지 않으며 합스부르크가를 되찾지 않을 것을 약속하자 철수했다. 1966년 오스트리아 사회당은 여당이 되어 오스트리아의 부유하고 안정된 경제를 지속시켰다.

<문화>

오스트리아의 현대 문화환경은 풍부한 유산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산은 건축과 시에서는 중세부터, 의학과 과학에서는 18, 19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빈 화랑들은 많은 옛 대가들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편이다.

오스트리아는 음악분야에서 가장 높이 인정되는 문화적 공헌을 했으며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 작곡가로 요제프 하이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프란츠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家) 등이 있다. 아르놀트 쇤베르크, 알반 베르크, 안톤 폰 베버른 등은 현대음악의 창시자에 속한다.

문학에서는 종종 독일어 문화의 정체지역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19세기

고전기 이후의 프란츠 그릴파르처, 요한 네스트로이, 페르디난트 라이문트 등과 20세기 초기의 후고 폰 호프만슈탈, 아르투르 슈니츨러 같은 작가들은 독특한 오스트리아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20세기 후반에 국제적 명성을 얻은 작가로 슈테판 츠바이크, 로베르트 무질, 페터 한트케 등이 있다. 오스카르 코코슈카와 알프레트 쿠빈은 오스트리아 현대미술의 최초의 창조자에 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재조직된 빈 국립 오페라는 밀라노의 라스칼라와 함부르크와 뮌헨의 오페라와 같은 위치를 차지한다. 빈 교향악단은 세계의 음악도시에서 연주했다.

<오스트리아와 한국과의 관계>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국과는 1963년 5월, 북한과는 1974년 12월에 국교를 수립했다. 한국과는 무역협정(1971. 10)·사증면제협정(1979. 3)·항공협정(1979. 5)·이중과세방지협정(1985. 10) 등을 체결했고, 북한과는 무역협정(1960. 12),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1978. 11), 항공운수협정(1979. 5) 등을 체결했다. 국제무대에서는 중립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992년 12월 현재 대한수입은 2억 3,000만 달러, 대한수출은 2억 1,100만 달러이고, 대북한 수입은 251만 달러, 대북한수출은 1,856만 달러이다. 1991년 6월 현재 교민 302명과 체류자 916명이 있다.

◆ 체코



수도는 프라하이다. 동쪽으로 슬로바키아,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남서쪽과 북서쪽으로 독일, 북쪽으로 폴란드와 접해 있다.

체코 공화국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보헤미아·모라비아 지역과 슐레지엔 남서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18~92년 보헤미아·모라비아·슬로바키아와 더불어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을 이루었다가 1993년 1월 1일 분리, 독립했다.

<역사>

1918년 슬로바키아와 연방을 이룰 때까지 체코의 역사는 보헤미아 역사와 거의 다름없다.

이 지역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은 켈트계의 보이족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로 부터 보헤미아라는 지명이 비롯되었다. 서력 기원이 시작될 무렵 게르만계 마르코만니족이 보이족의 뒤를 이어 이 지역을 차지했으며, 5~7세기에는 슬라브족이 이 지역을 휩쓸었다. 슬라브족의 일파인 체코인들은 9세기경

보헤미아 중부지역에서 세력을 떨쳤다. 슬라브족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켈트족·게르만족·아바르족이 연속적으로 몰려들어와 모라비아와 슬로바키아에도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뒤 모라바 강 근처에 정착한 슬라브족은 모라비아인으로 불렸다. 이웃 지역들과 오랜 분쟁 끝에 모라비아는 보헤미아에 합병되었다.

최초의 보헤미아 왕국은 프라하의 프르세미슬 왕조하에서 형성되었으며 895~1306년에 존속했다. 1085년에 이르러 프르세미슬 왕조는 많은 부를 축적하여 보헤미아 왕국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나의 독립된 왕국으로 인정받기도 했으며, 1114년 보헤미아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보헤미아 왕국(The Crown of Bohemia)

1306년 프르세미슬 왕가가 막을 내린 뒤 보헤미아의 왕권은 룩셈부르크로 넘어갔다. 1346년 카렐 1세가 왕위에 올랐고, 1355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카를 5세)가 되었다. 그는 프라하를 행정중심지로 삼았으며 보헤미아는 황금시대를 맞이했다.

15세기에는 체코의 성직자이자 학자인 얀 후스가 주도한 종교개혁운동이 보헤미아 전역을 휩쓸었다. 이 종교운동은 얀 후스가 체코어를 사용하는 대중에게만 지지를 호소하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유리되면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으며, 그의 추종자들인 후스파 교도들은 그후 여러 세기에 걸쳐 정치적·종교적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1526년 로마 가톨릭교를 믿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보헤미아의 왕권을 차지한 후 일어난 후스파의 반란(1618)은 30년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전쟁에서 보헤미아인들이 패배했고, 1627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비(非)가톨릭 교도들에 대해 가혹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합스부르크가를 통해 더욱 엄중하고 노골적인 통치를 가하기 시작했다.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성립되자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의 한 주로 편입되었다. 이에 보헤미아를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확산되었고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들이 형성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분괴되고, 토마슈 마사리크와 에드바르트 베네슈의 지도하에 보헤미아·모라비아·슬로바키아가 연방을 이룬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이 탄생했다.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는 체코슬로바키아 서부지역의 3/5을 차지했으며, 전체 인구의 2/3가 이에 속했다.

이후 70년 동안 체코의 역사는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의 역사로 대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4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었다. 소련으로부터 교묘한 작전행동을 하달받고 끊임없이 지원을 받던 공

산당원들은 1948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소련의 감독하에서 체코의 공산당은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한편 산업을 국유화하고 농업집산화 정책을 추진했다. 1970, 1980년대에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유럽의 국가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번영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억압받은 국가로 꼽혔다.

1989년 후반 소련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에 따른 민주화 물결이 동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체코슬로바키아 역시 급변화했다. 1989년 11월 시민 포럼이 주도한 시민혁명으로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 1989년 12월 29일 바츨라프 하벨이 새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개혁을 주도했다.

이때부터 경제 개혁에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된 슬로바키아에서 민족주의가 싹트었으며, 독립에 대한 요구가 일기 시작했다. 1992년 6월 5~6일에 실시된 총선 결과 체코에서는 보수주의적 우익세력인 시민민주당(CDP)이, 슬로바키아에서는 좌익민족주의 성향의 민주 슬로바키아 운동(HZDS)이 각각 승리를 거두어 연방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양측 당수는 같은 해 6월 20일 분리독립에 합의했다. 1992년 7월 17일 하벨은 연방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독립했다. 1993년 1월 26일 바츨라프 하벨이 신생국 체코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자연환경>

체코의 지형에서는 해발 900m의 보헤미아 대산괴가 눈에 띄는데, 이 산지가 큰 고분지인 보헤미아 고원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다. 모라바 강이 흐르는 중요한 협곡인 모라비아 회랑 서쪽으로 보헤미아 대산괴가, 동쪽으로 슬로바키아의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다.

체코 공화국은 남동쪽으로 흑해, 북쪽으로 북해와 발트 해를 나누는 유럽의 경계선에 있다. 엘베-블타바 강(라베-몰다우 강) 수계는 북서쪽으로 흘러 보헤미아 고원을 지나 이 나라 면적 2/3에 해당하는 서부지역을 적신 후 북해로 유입된다. 북쪽으로 흐르는 오데르(오드라) 강은 북동부 지역을 통해 발트 해로 빠져나가고 남동쪽으로 흐르는 모라바 강은 도나우 강과 흑해로 흘러든다.

기후는 복잡하지만 대체적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고, 동쪽으로 갈수록 거친 대륙성 기후가 강하게 나타난다. 연평균강수량은 1,500mm가 넘는 몇몇 산악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500~760mm이다. 겨울에는 온화하여 프라하의 1월 평균기온이 -3℃이며, 여름에는 따뜻하여 7, 8월 평균기온이

약 18℃ 정도이다.

큰 면적을 차지하는 원시림이 목재 수요와 경작 때문에 훼손되어 왔지만 삼림지대는 여전히 체코 공화국 지형의 특징을 이룬다. 오크·너도밤나무·가문비나무가 고도에 따라 구분되는 삼림대에 주로 자란다. 교목 한계선은 해발 1,400m에 이른다. 사슴과 야생 양을 보호하고 있는 크르코노셰국립공원은 다양한 야생생물로 유명하지만 스키 행락지로도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있다. 여러 세기에 걸친 개발에도 불구하고 안티몬·철광석·구리·납·아연·수은·금·주석 등의 금속 매장지는 지금도 채굴이 가능하다. 그밖에 우라늄 및 저품질의 석탄 매장지가 있다.

<문화>

체코는 전통적으로 예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이다. 문학은 18세기 후반부터 활발해졌다. 널리 알려진 시인인 카를 히네크 마하의 작품에 19세기초의 낭만주의가 잘 나타나 있으며, 카렐 차페크의 희곡과 소설, 프란티세크 랑게르의 희곡들은 서방 세계에서도 널리 읽혔다. 체코인들은 예로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질을 보여왔고 이들이 창작한 오페라·교향곡·합창곡 등은 여전히 인기 있다. 체코인 작곡가 가운데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안토닌 드보르자크, 레오슈 야나체크, 보후슬라프 마르티누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한편 영화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체코와 한국과의 관계>

체코는 독립일인 1993년 1월 1일 한국으로부터 국가승인을 받는 동시에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주요 협정으로 문화협정(1994. 10)·사증면제협정(1994. 10)·과학기술협력협정(1995. 3) 등이 있다. 현재 대한 주요수출품은 기계류·철강·금속제품·유리제품이며, 주요수입품은 가전제품·섬유류·기계류이다. 1996년 현재 대한 수출액은 5,927만 달러이며, 대한 수입액은 1억 8,766만 달러이다. 1997년 현재 교민은 2명, 체류자는 196명이다.

II 연수내용

1. 독일-로텐부르크

독일의 로맨틱 가도의 하이라이트인 로텐부르크의 정식 명칭은 ‘로텐부르크 옉 테어 타우버’이다.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로텐부르크는 구시가지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성벽 밖에 위치한 기차역에서 내려 성문을 통과하면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아기자기한 마오이 펼쳐진다. 특별한 랜드마크는 없지만, 다채로운 색감의 예쁜 집들과 꽃으로 장식된 창문들이 이어지는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동화속으로 돌아간 착각이들 정도로 중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로텐부르크는 960년 처음으로 부락이 형성되었고 1142년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콘라트 3세때 라이히스부르크 제국의 성곽이 건축되었으며, 1400년 도시가 전성기를 누렸으나 1618년 30년 전쟁 후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500년간 자우도시였던 루텐부르크는 1802년 바이에른 왕국에 병합되었다.

2차 세계대전때 로텐부르크의 약 40%가 전쟁의 포화로 파괴되었으나 도시의 높은 문화적 가치로 인해 전 세계의 후원을 받아 옛 모습을 복원하게 되었고 현재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하였다.



2. 독일-뮌헨

역사적 기록으로 미루어 문서에서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인 1158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문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서명을 받았다. 1180년 작센과 바이에른 대공인 벨프 가가의 하인리히 사자공이 지배할 무렵, 이자르 강에 베네딕트 수도원 인근으로 다리를 건설하였다.

1175년, 뮌헨은 도시로 승격되어 성곽이 건설되었다. 1180년 하인리히 사자공이 도시에 들어섰고, 오토 1세가 바이에른과 뮌헨의 대공이 프라이징 대관 자리도 차지하였다. (비텔즈바흐와 그의 후예는 바이에른을 이후 1918년까지 지배하였다.) 1240년, 뮌헨의 지배권은 1255년까지 오토 2세가 가져갔고, 바이에른 영지가 둘로 나누어지자, 뮌헨은 오버바이에른의 중심이 되었다.

1314년, 루트비히 4세가 독일의 왕으로 선출되었고, 1328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그는 뮌헨에 소금 독점권을 부여하였고,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세기 말, 뮌헨은 구시가지에 대규모 고딕 건축물이 조성되었고, 뮌헨의 최대 고딕 성당이자, 현재의 프라우엔키어헤가 1468년을 기점으로 20년에 걸쳐져 건설되었다



3. 오스트리아-할슈타트

잘츠부르크 동쪽에 위치한 잘츠카머구트는 알프스의 산자락과 70여 개의 호수를 품은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으로 나온 그림 같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그중에서도 할슈타트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잘츠카머구트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워, 우리나라 드라마 <봄의 왈츠>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날씨가 좋으면 마을 풍경이 호수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문화경관 부문에 등재되었다.



4. 오스트리아-잘츠카머구트

이 지방은 주로 트라운 강 유역으로 이루어지며, 호수와 산의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아터·트라운·몬트·볼프강(아버)·할슈테터 호 등 30개가 넘는 호수들이 있어서 종종 오스트리아의 ‘호수지방’으로 불린다.

이 지방의 가장 높은 지대인 다흐슈타인 산군은 남쪽으로 뻗어 있으며 높이는 2,995m에 달한다. 이 산군은 토테스 산군 및 바르세네크와 더불어 석회암 단층지괴들이다. ‘소금갱 영지’를 뜻하는 이 지역의 지명은 철기시대부터 채광되어온 할슈타트·바트이슬·바트아우세의 광염매장지들에서 유래했다. 수분증발을 위한 탈수공장들이 이 세 곳의 본고장과 에벤제 및 그문텐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 지방의 목재는 건물건축·제지·섬유제조에 중요하게 쓰인다. 소 사육, 낙농업, 포르테러고자우 호수의 수력발전, 시멘트 생산, 그문텐의 도자기 제조 역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주요수입원은 관광산업인데 이것은 그문텐·바트이슬·장크트볼프강·바트아우세 등의 휴양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잘츠카머구트는 독일어 ‘Salz(소금)+Kammer(황제 또는 국가의 보물 창고)+Gut(소유지)’가 합쳐진 말로, ‘황제의 소금 보물 창고 지역’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이 지역은 소금과 광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다. 잘츠카머구트가 위치한 알프스 산맥은 한때 바다였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 바닷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게 되었고, 수백 년이 흐르면서 거대한 암염 광맥으로 형성된 것이 지금의 소금 광산이다. 특히 할슈타트는 세계 최초의 소금 광산이 있는 곳으로, 기원전부터 소금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고, 지금까지도 채굴을 하고 있다.



5. 오스트리아 - 비엔나



<슈테판 대성당>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양식 건물로서, 1147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설을 시작하였고, 1258년 빈을 휩쓸었던 대화재로 전소되었다가 1263년 보헤미아 왕에 의해 재건되었다. 1359년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을 헐어버리고 고딕 양식으로 개축하였고, 1683년에는 터키군, 1945년에는 독일군에 의해 많이 파괴되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복구를 시작하여 대부분 옛 모습을 찾았다. 성당 이름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성인 슈테판에서 딴 것이다.

옛 건물이 가득 들어찬 구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다. ‘빈의 혼(魂)’ 이라고 부를 정도로 빈의 상징으로 꼽힌다. 공사기간이 65년이나 걸렸으며 건물의 길이가 107m, 천정 높이가 39m에 이르는 거대한 사원이다. 높이 137m에 달하는 첨탑과 25만 개의 청색과 금색 벽돌로 만든 화려한 모자이크 지붕이 눈에 띈다. 보헤미아 왕이 세웠던 ‘거인의 문’과 ‘이교도의 탑’도 남아 있다.

건물 내부에는 16세기의 조각가 안톤 필그람이 만든 석조 부조의 설교대와 15세기 말에 만들어진 프리드리히 3세의 대리석 석관이 있다. 그밖에 마리아와 예수상이 있고,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이 매우 아름답다. 지하에는 1450년에 만든 지하유골 안치소 카타콤이 있는데, 페스트로 죽은 사람의 유골 약 2,000구와 합스부르크 왕가 황제들의 유해 가운데 심장 등의 내장을 담은 항아리 및 백골이 쌓여 있다. 모차르트의 결혼식(1782)과 장례식(1791)이 치러진 곳이며, 빈 시민들은 매년 12월 31일 슈테판대성당 광장에 모여 새해를 맞는다.



<원부룬 궁전>

바로크 양식의 원부룬 궁전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여름 주거지였다. ‘합스부르크 옐로’로 알려진 독특한 색채의 건물은 내부에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로코코 양식이 주를 이루며 황금으로 된 장식, 크리스털 샹들리에, 커다란 거울 등을 볼 수 있다. 원부룬에는 1,441개라는 엄청난 개수의 방이 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와 그녀의 남편인 황제 프란츠 1세는 원부룬에서 여름을 보냈으며, 그들이 통치하던 시절 여섯 살 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궁전에 초대받아 여제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원부룬에서 1830년 출생했으며 여든여섯의 나이로 이곳에서 죽게 된다. 이 궁전은 프란츠 요제프의 아내이며 애칭으로 ‘시시’라 불리기도 했던 엘리자베트 황후와의 인연으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원부룬을 매우 사랑하여 결혼한 이후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지냈다.

합스부르크 가의 이 궁전은 17세기에는 사냥 별장이었으며, 터키가 빈을 점령했을 때 파괴되었던 자리에 세워졌다. ‘원부룬’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샘물을 의미하는데, 이곳에 왕실의 식수를 제공해 주던 천연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부룬 궁전은 ‘글로리에테’라는 이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웅장한 신고전주의풍 아치들, 모조 로마 유적, 화려한 분수, 인상적인 종려나무 온실을 완벽하게 갖춘 눈부시게 화려한 대정원에 자리 잡고 있다.

1918년 카를 1세 황제가 왕위에서 물러나 오스트리아는 공화국이 되었다. 그는 퇴임 연설을 원부룬에서 거행했고, 궁전은 공화국의 소유가 되었다. 원부룬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피해를 입어 1950년대에 복구되었다. 오늘날 이 궁전은 마땅히 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6. 헝가리-부다페스트



<어부의 요새>

왕궁 언덕의 동쪽에 우뚝 서 있는 네오 로마네스크와 네오 고딕 양식이 절묘하게 혼재된 건물로, 1899년에서 1905년 사이에 지어졌다. 헝가리 애국정신의 한 상징으로 19세기 시민군이 왕궁을 지키고 있을 때 도나우강의 어부들이 강을 건너 기습하는 적을 막기 위해 이 요새를 방어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중세에는 어부들이 도나우강에서 왕궁 지구에 있는 어시장으로 가는 지름길로 사용되었다. 동양적인 색깔이 짙은 고깔모자 모양을 한 일곱 개의

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건국 당시의 7부족을 상징한다. 전체가 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얀 색의 화려한 성벽과 마차시교회까지 뻗어있는 계단이 아름답다.



<영웅광장>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1896년에 지어진 광장이다. 광장 중앙에는 36m 높이의 기둥이 있는데, 꼭대기에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조각상이 있다. 기둥 옆에는 마차르의 7개 부족장들의 동상이 있다. 이 기둥을 기준으로

반원의 형태로 주랑이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곳에는 헝가리의 역대 왕과 영웅들이 연대순으로 조각되어 있다.

7. 체코



<밤베르크 구시청사>
레그니츠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11세기에 세워진 오버레 브뤼케(Obere Brücke)와 언터레 브뤼케(Untere Brücke) 두 개의 다리 사이에 지어진 건물이다. 중세 시대에는 강을 경계로 주교의 영역과 시민의 영역이 나뉘어 있었는데, 시청사의 위치에 대해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두 영역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레그니츠 강 위에 작은 섬을 만들어 다리와 다리 사이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1386년에 처음 지어졌지만 화재로 인해 1461~1467년 고딕 양식으로 다시 지어졌다.

1744~1756년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구시청사 모습을 갖추었다. 외벽에는 프레스코화를 그려 밤베르크를 대표하는 랜트마르크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현재는 특별전이 열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III 연수후기(총평)

○ 동유럽 4개국(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을 9일간의 여정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동유럽 국가의 도시경관 이미지는 영화 속 중세시대를 떠오르게 한다. 그도그렇듯이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꼈지만, 건물이나 도시 환경 자체가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것과 같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환경적 지속 가능 발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뤄지면서 모든 건물이나 사회기반시설이 외형적 규모를 키워가고 현대적 이미지를 추구하고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도 이러한 추세를 원하고 있으며 거주지 주변에 대한 대형 유통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통해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을 보면 과거 건축물, 유적, 문화재 등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현대적 이미지보다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과거의 이미지를 계승하고 융합되어 마치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건물인양 도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가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를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상반되는 것이며, 심지어는 건물 설계가 구조물 자체에만 크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바닥에 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적한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바닥을 벽돌로 포장하였는데 그 바닥의 돌은 중세시대부터 있어 왔던 돌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유지하고 있어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이 나라들의 노력에 경외감마저 든다.

○ 그리고, 1980년대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계획 기본법령을 개정하여 사유건축물이라도 조명, 색채, 간판 등의 변경과 수선은 시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며 이때 시에서는 건축가, 디자이너, 문화재 관리, 역사가 등 전문가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하며 구시가지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나 간판설치는 2층까지만 허용, 전통적인 간판은 보존하여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개발위주의 도시개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안성시의 도시개발과 더불어 안성시의 유구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와 신규 문화의 융합과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